

전권 휘두르는 조합장이 업체 선정 ‘짹짹미’

성매매 업소 이례적 재산 몰수

광주지검, 업주 구속·건물 경매 처분...부당수익금 회수

복마전 된 재개발주택조합...비리 왜 끊이지 않나

10억 뇌물·횡령 광주 계림2구역 조합장 등 2명 구속 “뇌물 제공업체 처벌 강화·공공관리제 도입” 여론 높아

광주의 한 지역주택개발조합장이 1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광주지역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복마전으로 번질하고 있다.

지역주택개발조합은 조합 총회를 거쳐 용역업체와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조합장이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총회는 의결만 하는 구조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비리 가담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계림2구역 조합장 10억원 뇌물수수·횡령=광주동부경찰은 30일 공사과 용역발주를 대가로 5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

고, 조합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장 장모(51)씨와 전문관리업체 대표 차모(58)씨를 구속했다. 또 장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비 횡령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직 공무원인 장씨는 내연녀가 운영하는 분업대행업체 직원 명의의 대표통장으로 뇌물을 받거나 조합비를 횡령하는 등 돈세탁을 해왔으며, 이를 카지노 도박과 이혼한 전처의 아파트 구입 및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재개발주택조합 비리 복마전 ‘왜?’=장씨는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발주한 전문관리업체 선정, 청소 용역, 경관분석 용역, 설계 용역 등 모두 4건의 입찰과정에서 3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까지 받는 등 모든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장씨는 업체 선정 총회, 계약서 작성 시점 전후로

뇌물을 받았다.

장씨가 업체들로부터 수익원의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체 선정 권한이 조합장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시공사와 용역업체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지만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정한 업체를 승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경쟁입찰도 문제다. 조합장이 원하는 업체를 유리한 곳에 배치하고, 설명회에서도 부각시켜 홍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공식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 등 3개사를 선정하고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의 이해관계와 시공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 조합이 주어지는 업체 선정 권한은 10여개가 넘고, 이 권한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

지역에서는 최근 계림2구역과 같이 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창호 업체에 공사수주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동구 계림4구역 조합장과 이사가 검찰에 구속됐고, 2월에는 광산

구 신가동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뇌물공여 정비업체 처벌 강화...공공관리제 도입도=재개발 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권을 얻기 위한 업체들의 로비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경미한 사안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관리자가 돼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관리제’ 도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는 재건축 설계부터 입주까지 지자체가 나서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광주시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비용 부담과 전력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주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사유지 개발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검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제 재산몰수처분을 했다. 2차 레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영업을 계속하자 업주를 구속하고, 부당수익금 회수 차원에서 업주 건물에 대해 몰수처분한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신의 건물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과 9월23일 2차례 경찰에 단속됐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18일 벌금 500만원(약식기소)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처벌에도 키스방을 계속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검찰의 통신추적 등으로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동일 장소에서의 키스방 홍보가 계속되자 주변 발신기지구 추적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계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뒤 압수

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단속 및 처벌 기간 중에 도 1년 이상 영업을 이어가며 1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올렸다는 점에 주목, 업소 소재 건물에 A씨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토지와 상가에 몰수보전을 청구·집행했다. 해당 건물은 경매 처분돼 불법 수익금 1억4000만원을 회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키스방 운영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처벌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한데다 미성년자까지 고용한 것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단순 처리하지 않고 현장답사·압수수색 등을 통해 영업 계속 사실과 고액의 매출 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A씨 소유의 상가건물을 몰수보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월 여성·아동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번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간통죄 폐지됐지만 불륜 묵과 못해”

광산경찰, 미혼여성과 부적절 관계 맺은 기혼 경찰 징계

기혼자인 경찰관이 미혼 여성과 부적절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조치됐다.

광주광산경찰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최근 관할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경위는 사적으로 알게 된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간통죄는 폐

지됐지만 유부남으로서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와 이성교제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무위반”이라며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가 경찰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흥업소 여종업원 때리고 금품 빼앗은 50대 뒤늦은 후회



○...모텔 객실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마구 때리고 금품까지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행.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2시에 광주시 광산구 침단지구의 한 모텔에서 이모(45)씨를 객실을 벗어나려 하자 열

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린 데 이어 여성의 지갑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

○...불법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2차를 갔는데,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성이) 객실을 빠져나가려 하

자 순간 이성을 잃었다. 빼앗은 돈도 본래 내 돈이었는데 진짜 신고할 줄은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khh@

고속도로 위협운전 사고 순천경찰, 40대女 구속

순천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서행하며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며 위협 운전을 하고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수협박)로 김모(여·42)씨를 30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20분경 경남 창원군 중부내륙고속도로 21km지점 상행선 1차로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여성 운전자 A(35)씨가 몰던 차량을 10km가량 바짝 붙어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위협운전 한 혐의다.

또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해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급정지하자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급정지로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급정지하면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1대가 폐차되는 등 약 85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 광기술원장 사퇴 촉구 시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조합은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국광기술원 앞에서 ‘박동욱 원장 연임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박 원장의 연임반대와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박 원장은 임기 3년 동안 독선과 전횡을 일삼고 광기술원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연구원들을 단기과제 수주에 내몰고 그 실적은 자신의 치적으로 뽐냈다”며 “박 원장 개인의 영달을 위한 연임은 연구원 총사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초 보직이 없는 직원 2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61명 중 최대 80% 이상이 박 원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광기술원 원장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원장 후보자를 접수하고 10일까지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3년 임기를 채운 박 원장은 연임을 위한 재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김경민기자 kki@



안전한 통학로 만듭시다...‘엘로 카펫’에선 서행하세요

광주시 북구청과 국제아동인권센터, 광주 기아자동차봉사단 등이 30일 오전 북구 문흥중앙초 정문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엘로카펫’을 설치하고 있다. 엘로카펫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 옆 인도와 벽면에 노란색 표시제를 부착해 운전자와 멀리서도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700㎡ 건물 2005㎡ 감정이 19억5천8백만원 최저가 13억7천만원 1층수퍼 2~8층 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이 7억9천6백만원 최저가 5억5천8백만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 대지 1488㎡ 건물 2075㎡ 감정이 30억6천5백 최저가 7억3백
-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 2349㎡ 감정이14억 최저가 6억2천7백만원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내 대지 3293㎡ 건물 1495㎡ 감정이 17억5천만원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단층공장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 1,261㎡ 감정이 12억1천6백 최저가 9억7천3백만원 현학원 운영중
-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 210㎡ 건물152㎡ 감정이 1억8천6백만원 최저가 1억3천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조망 감정이 9억1천5백만원 최저가 9억1천5백만원
- ★ 광산구 오산동 진곡산단내 대지319㎡ 감정이 1억9천5백만원 최저가 1억9천5백만원 단독주택부지 기반시설완료

수익형 일반매매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편성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학교부지변경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전문의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유치 기업은행부면 대지 479㎡ 매매 5억8천(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델유형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부면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을 매매 27억(용13억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 58억(용28억 포함), 수익성 월8천 정도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 24억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 40억 (보증금 2억3천, 월 2천7백)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 422㎡ 6층 모텔 객실 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용 4억8천 추가3억 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 방3개 매매 6억3천 대출 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 5백
- ★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편성, 빌라부지 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